

“南-北-日 평화벨트 구축 평생의 꿈”

일본 벤처기업가 고마스 씨

시네마현-독도-금강산 연결
동북아 평화기여 대승적 차원
독도에 평화의 탑 건립 소망

“제가 남북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웃한 나라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제 노력이 동북아 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시네마현의 벤처기업가 고마스 야키오(59·고마스전기산업 대표)씨가 최근 시네마현과 독도·속초·금강산을 잇는 ‘녹색평화벨트’ 구축을 위해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을 찾아 프로젝트 구축 의지를 다졌다. 지난 97년 독립기념관을 방문, 한·일친선을 위한 비용으로 씨달라미 100만엔을 기부한데 이어 이듬해 대한적십자사에 대북지원금 500만엔을 기부했다. 이후 매년 고마스전기 사원 연수를 한국에서 시켜오기도 했다.

“김구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평화주의자임



니다. 시네마현은 독도와 속초를 직선으로 잇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한국과 일본이 이웃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화와 인권교육이 미흡한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다. 독도에 평화의 탑을 건립하고 제가 사는 시네마현과 속초에 친한경직이고 평화지향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평생의 꿈입니다.”

고마스씨의 이같은 생각은 시네마현에 ‘전쟁역사기념관’ 건립을 시작한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안중근 김구 등 일제에 항거했던 인물의 기념관을 찾아 현화하는 의식도 평화운동의 한 맥락. 그는 백범기념관에 이어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 난징학살의 현장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역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25년 전 사업차 한국에 왔을 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수모를 당했어요.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싶어서 독립기념관을 찾아 불행한 역사를 배우려했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단 한줄의 일본어 께플릿도 없는 겁니다. 당시 박유철 관장에게 간곡히 부탁해 적은 금액을 기부하고 한·일 우호를 위해 씨달라미 했지요.”

그는 “우리 직원들은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방문 등으로 짜여진 한국 연수를 다녀오면 한국마니아가 된다”며 “내가 못하면 후대가 ‘녹색평화벨트’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며 평화의 사절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전정희기자 jhjeon@kmb.co.kr

國民日報 ... 2003年 9月10日(水)

人々(人物欄)

“南-北-日 平和ベルト 構築 一生の夢”

日本ベンチャ企業家 小松氏

島根縣 - 獨島 - 金剛山 連結

東北亞平和寄與 大乘的 次元

獨島に平和の塔 建立所望

“私が南・北韓に少しでも爲になろうと思い初めたのは、隣り國として相互理解が足りないという経験から爲になる事を願っております。”

日本 島根縣のベンチャ企業家 小松昭夫(59歳, 小松電氣産業代表)氏が、最近 島根縣と獨島~東草~金剛山をつなぐ「綠色平和ベルト」構築の爲、ソウル 孝昌洞 白帆紀念館を訪問してプロジェクトの構築意志を確めた。去る平成9年(1997年) 獨立紀念館を訪問し、韓・日 親善の爲の費用として100萬圓を寄附し、又 翌年には大韓赤十字社を訪問して北韓(北朝鮮)食糧支援金として500萬圓を寄附した。以後、毎年 小松電氣の社員を研修旅行として韓國に行かせました。

“金九先生は私が尊敬している平和主義者であります。島根縣は獨島と東草を直線につながっています。北韓(北朝鮮)の人々が飢え死になっている状態の中で隣り國としての韓國と日本が今にいたっても 又、葛藤の中にいるというのは根本的に平和と人權教育が足りない所から基因したと私は思っています。獨島に平和の塔を建立し、私が住んでいる島根縣と東草に親環境的で平和指向的な共同體を建設するのが私の一生の夢であります。”

小松氏のこのような構想は島根縣に「戦争歴史紀念館」建立を始める事で具體化されています。安重根、金九 等 日帝に抗拒した人物の紀念館を訪問、獻花する儀式も平和運動の一つの脈絡。小松社長は白帆紀念館の訪問の後、中國 南京に行って南京虐殺の現場を見廻る計劃を持っています。

“歴史を共有したい気持ちです。25年前、事業の爲 韓國を訪問した時 日本人という理由だけでタクシの技士から受侮を受けました。お互いに知らない事が多いからこんな不祥事が起きるのだと思って獨立紀念館を訪ね、不幸な過去の歴史を勉強しようと思いました。ところが、當時 日本語のパンフレット、獨立紀念館を説明してくれる日本語は一字も見ることが出来ませんでした。當時 朴維徹館長に鄭重にお願いし、少額を寄附させていただいて 韓・日 友好の爲 使

用して下さいと頼みました。”

小松社長は“我が会社の職員達は獨立記念館，白帆記念館訪問等のスケジュールでの韓国研修を修了して來ると韓国マニアになってしまいます。”と言いながら“私がもし達成する事が出来なければ次の世代が「綠色平和ベルト」プロジェクトを達成する事が出来る事でしょう。”と平和の使節としての覺悟を明きらかにした。

全正熙 記者

jhjeon@kmib.co.kr

(國民日報 文化部 次長)